

#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명'

연체금액 1091억... 3년간 최다·최고  
지난해 대출받은 인원 19.7만명  
청년 빈곤문제,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대출연체 등으로 확대 지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2021년~2024년)〉

(단위: 명, 억원 / 각 연도 말 기준)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7월 |
|------|--------|--------|--------|----------|
| 연체인원 | 16,669 | 17,774 | 21,458 | 20,615   |
| 연체잔액 | 835    | 899    | 1,091  | 1,066    |

/문정복 의원실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연체인원은 ▲2021년 1만6669명 ▲

2022년 1만7774명 ▲2023년 2만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만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 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이 머물러 있다”라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대·고려대, 수시접수 지원자 늘었다

서울대 수시 경쟁률 9.1대 1로 상승  
고려대, 20.5대 1... 2배 가량 올라  
전국 의대 경쟁률은 낮아질 전망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쟁률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두 대학 모두 의대 수시 경쟁률도 상승했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1일 18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수시 모집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9279명에서 1만9820명으로 541명(2.8%) 증가했다. 경쟁률도 8.8대 1에서 9.1대 1로 상승했다.

고려대 수시 모집 지원자는 지난해 3만3178명에서 5만4041명으로 62.9%p(2만863명) 늘었다. 경쟁률은 13.0대 1에서 20.5대 1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특히 올해부터 정원이 증원돼 관심을 끄는 ‘의대’의 경우 두 대학 모두 지원자 수가 크게 늘어, 지난해 3027명에서 3335명으로 308명(10.2%) 증가했다.

서울대 의대 지원자 수는 1215명이던 지난해보다 73명 더 늘어 1288고, 고려대 의대는 지원자 수가 지난해 1812명에서 235명(13.0%) 늘어 204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의 경쟁률은 지난해 12.66대 1에서 13.56대 1로, 고려대 의대는 27.04대 1에서 30.55대 1로 상승했다.

서울대 수시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인문계열의 경우 18.5대 1을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입시 학원의 모습. /뉴스1

기록한 사회학과 일반전형이다. 자연계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일반전형 경쟁률이 19.50대 1로 가장 높았다.

고려대는 수시모집에서 인문계의 경우 논술전형 자유전공학부가 경쟁률이 높은 91.0대 1을 기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논술전형의 전기전자공학부가 10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컴퓨터학과 90.27대 1 ▲인공지능학과 78.00대 1 순이다.

의대 증원 여파로 올해 의대 지원건수는 전년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 의대의 평균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일 시작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11~13일 사이 대학별로 마감한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국토부, 재건축·개발 신속추진 약속

서울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서  
상황 점검하고 주민간담회 열어  
8.8대책 통한 지원방안·의견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언론사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도 8.8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 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했다. 주민들은 준공 후 35년이 경과해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배관 등도 노후되는 등 주차장, 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서는 8.8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줄이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213명 수시채용

오는 19일부터 이메일 접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신규 조리실무사 213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시채용은 조리실무사결원이 많은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의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다.

조리실무사 최종 합격자는 11월에 강동송파,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소속 공립학교에 배치될 계획이며,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응시자격은 18세(2006. 9. 5. 이전 출

생자)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외)로 성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 9시부터 23일 18시까지 5일간 이메일로 접수받으며, 자격요건, 채용방법 및 일정 등 공고 세부내용은 채용시스템 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리실무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라며 “학교 급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파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확정

내년 예정... 핵심 인프라 확충 포함

파주시는 11일 발표된 ‘경기도 민선 8기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에 파주의 주요 숙원사업들이 포함되면서, 100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기 북부의 70년 넘은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 철도·하천·도로 등 핵심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2025년으로 명확히 예정되었으며, 청사 신축이 지연될 경우 임차 방식으로라도 주요 핵심부서를 먼저 이전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발표되어, 파주시민들의 오랜 요구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파주시는 2021년 공공기관 유치 확정 후 빠르게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민 주도의 서명운동까지 전개해 경과원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해왔다.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파주발 고속철도(KTX) 신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파주시의 광역 교통망을 확장해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파주에서 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글로벌 AI 클러스터 조성,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 지원, 도로·하천 사업의 조기 착공과 준공,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등이 포함되며 파주시의 도시개발과 인프라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선제적 추진방안은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기도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며 52만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부산시-서울시, 위케이션 활성화 박차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에  
부산형 위케이션 사업 지원

부산시는 서울시와 함께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서울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6일 각 지역 위케이션 사업 수행기관인 부산장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경제진흥원은 ‘부산형 위케

이션 활성화 사업’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 위케이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부산형 위케이션에 참여함으로써 ▲숙박시설 및 업무공간 이용 ▲네트워킹 행사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스타트업, 관광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비즈니스 협업 관계 형성 ▲관광·문화 상품 체험 ▲기본 숙박 지원금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